

春川農歌

2023. 12. 제 **6** 호

춘천농사; 춘천의 농업을 노갱하다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39(사농동,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 2층 D-4 전화 033-252-0038 인쇄처 디자인나무

회의소 소식





11.11(토) 춘천시 삼천동 야외음악당에서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와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춘천시 농업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협의회

9.21(목)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어업 회의소가 건의한 정책안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위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춘천시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전문교육

11.3(금)~11.8(수) 춘천시농어업회의소 회의실에서 농어업회의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이 진행되었 습니다. 춘천시 농업이 선진 기술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농촌 환경의 보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회의소가 앞장서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제3차 이사회

11.14(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소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농어업회의소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농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선진지 견학

11.28(화)~11.30(목)까지 춘천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지역 청년농업인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선진지 견학

12.4(월)~12.5(화) 춘천시농어업회의소 회원을 대상으로 충남 태안, 예산 일대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농귀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12.7(목) 팔미2리 마을회관에서 귀농인과 원주민이 상호 인사를 나누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귀농가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2023년 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활동내역

1분기

01. 26 제1회 이사회 개최

02.07 - 17 11개 읍면순회간담회 개최

02.13 서춘천농협 조합원 대상 홍보설명회

02.17 제2회 (서면)이사회 개최

02.23 대의원 총회 개최

03.09 - 10 전국회의소 워크숍 참석

03. 24 농어업회의소·농업기술센터 1차 정례회 개최

03. 24 - 28 이장단협의회 홍보설명회

3분기

07.03-05 농어업회의소 분과토론회 개최

07.10 - 11 도내 농어업회의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07. 19 농어업회의소·농업기술센터 3차 정례회 개최

08.14 춘천시의회 균형발전 간담회 참석

08.17 쌀전업농 도대회 참석

08. 26 춘천시 파머스마켓 개최

08. 29 후계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

08.30 농촌지도자 강원도 대회 참석

09.05 2024 농식품분야 정책협의회 개최

09.08 마을공동체 활력지원사업 추진

09. 21 춘천시 농정예산 정책 포럼 개최

09. 22 전국회의소 사무국 역량강화교육 참석

2분기

04.17 1분기 회의소 소식지 발간

04. 24 - 26 농어업회의소 분과토론회 개최

04.28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홍보 부스 운영

05.15 농어업회의소·농업기술센터2차 정례회 개최

05. 25 농어업회의소 분과토론회 개최

06.05 - 23 상생협력을 위한 8개 업체 업무제휴

06.30 소양호 내수면어촌계 홍보설명회

06. 30 2분기 회의소 소식지 발간06. 3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MOU

4분기

10.04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개최

10.10 3분기 회의소 소식지 발간

10.16 지역농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

10.26 전국회의소 사무국역량강화 교육 참석

11.07 - 8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전문교육 개최

11.11 제28회 농업인의 날 개최

11.14 제3회 이사회 개최

12. 01 춘천시 농어업인수당 평가 분석

12.04 - 05 농어업회의소 선진지 견학 추진

12.07 - 15 찾아가는 마을단위 융화교육 추진

제28회 농업인의 날 많은 후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명단

대동농기계, 근우테크, KI테크, 노다지엠,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 동춘천농협, 춘천양돈농협, 강원인삼조합, 춘천시산림조합, 전농춘천시농민회, 여성농업인춘천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춘천시연합회, 춘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협춘천시조합운영협의회. 이종남님(현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변옥철님(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11대 회장), 최돈식님(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초대회장), 송연옥님(한국여성농업인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경순님(인삼작목반연합회장)

춘천시 농어업인수당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다원적 가치가 최대한 유지·증진 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춘천시는 2021년부터 연 7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춘천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설문대상 : 춘천시 농어업회의소 회원
- 조사기간 : 2023. 8. 21 ~ 2023. 9. 22(약 1개월)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 유효 응답자 수 : 221명

설문조사 결과

① 응답자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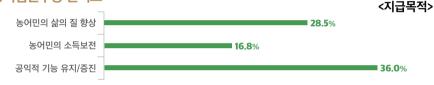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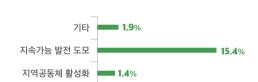




응답자 특성은 남성이 86%, 여성이 14%로 나타 났으며 60대가 49%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종사 분야로는 농업이 83.7%, 축산업 11.3%, 기타 4.1%, 어업 0.9%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② 농어업인수당 인식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목적에 대해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유지 및 증진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28.5%, 농어민의 소득보전 16.8% 순으로 나타남

③ 농어가 만족도 및 가계 살림 개선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3.21점, 전반적 만족도 3.19점, 삶의 개선도 3.09점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만족도와 농어촌 거주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개선이 다른 만족도 개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만족도 보다는 농어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농어촌 거주에 따른 만족도 등 보편적인 만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④ 농어업인수당 사용처





농어업인수당 사용처는 농자재 구입이 4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활용품 및 잡화류 구입 19.6%, 식료품 구입 17.5%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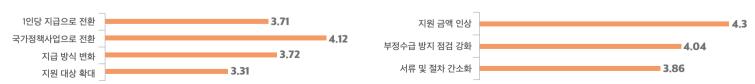
⑤ 농어업인수당의 성과





농어업인수당의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3.32점으로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으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또한 지역사회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수당지급과 이에 대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활력 제고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음

⑥ 농어업인수당 개선사항



개선사항으로는 지원금액 인상, 부정수급 방지 및 점검강화,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 등이 높게 나타났음

※종합의견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춘천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도가 평균 3.13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응답자들은 수당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고취된다고 평가하였음

농어업회의소라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에 이르는 길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1,600여 명 농업인 중 46.2퍼센트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농업인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3.6퍼센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 비율도 84.0퍼센트였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신문 지면이나 토론회에 등장하기도 한다.

농어업회의소 반대론 중 첫째는 '민주주의 역량 부족론'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프랑스나 독일에서 유래했는데 한국 농민은 민주주의 역량이 성숙하지 못했으니,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민주주의 제도는 끊임없는 투쟁과 시행착오 속에서 학습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더니 시민의 역량이 쌓여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있는가?

둘째는 '옥상옥론'이다. 농업인단체들이 협의회(흔히, '농단협'이라고 한다)를 구성해 시장·군수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농어업회의소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농단협이 없는 시·군이 많다. 농업인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농단협과는 무관한 농업인도 압도적으로 많다. 농단협이 있어서 1년에 몇 번 시장·군수와 만나도 그것은 간담회일 뿐이다. 농어업회의소 만들자는 주장은 농업인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제출되고 토의되는 '공론장'을, 농업인들의 정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자는 말이다.

셋째는 '관변단체론'이다. 관 주도로 농어업회의소를 만들면 시장·군수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주장이다. 이미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들 중 몇몇 사례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농어업회의소 제도에 대한 오인(誤認)이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자주적이어야 할 민간단체가 관에 종속되면 관변단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농어업회의소들이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휘둘리는 곳도 몇 군데 있을 테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농정을 협의하는 절차를 운영하는 곳도 여럿 있다.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자는 말은, 법률로 규정된 공적(公的) 지위를 농어업회의소에 부여함으로써 관변단체가 아닌 '공공의 대의기구'로 자리 잡게 하자는 주장이다.

넷째는 '대표성 문제론'이다. 농어업회의소에 지역의 농업인 다수가 가입하지 않으면 대표성 있는 대의기구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하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들에는 그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2,000명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1,000명 안팎이다. 웬만한 농촌 시·군의 농업인 수가 1만 명은 넘을 테다. 대표성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업인이라면 자동으로 회원이 되고, 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을 지방의회 의원 뽑듯이 보통선거로 뽑는다면 모를까, 그런 의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 현재 대표성이 확실한 지방농정의 공적 기구는 없다. 법률로 규정된 지방농정 협의기구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농정심의회가 있다. 기껏해야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농업인들이 그들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심의할 정책 안건을 농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 상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 반대론의 밑바닥에 '냉소'가 깔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 실상은 "내가 잘 아는데, 해봐야 소용없어"라는 식의 냉소 말이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를 만들고 법제를 정비하면 별안간 '지방농정의 민주화'를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인의 대의기구'라고 내세우면서,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임원·대의원 등이 시·군 행정보다 높은 곳에서 뭔가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허영'이다. 농어업회의소의 힘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법률은 농어회의소가 하려는 공론장 기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결국,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업'회의'소에서 '회의'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토론 민주주의를 학습해야 한다. 그렇게 냉소와 허영의 사잇길을 뚫어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를 정착시키는 일을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그 고된 행로의 중간에 갈증을 달래줄 물 한 병 마시는 일과 같다. 먼 길 달려가려면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꼭 넘어야 할 눈앞의 작은 언덕을 포기하고 주저앉아도 안 될 일이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2023년 농어업회의소 회원 수상내역



춘천시쌀전업농연합회 | 우수쌀전업농 금상 수상



홍종성 | 농산물품질관리 '대통령표창' 수상



양찬식·김미영 | 농협 '새농민상' 본상 수상



박현배 | 제10회 흙살림상 청년농부 부문상 수상



황희중·정귀숙 |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이재황·김현미 |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김방수(신북읍) | 우수농업인 춘천시장 표창 수상 김일수(남 면) | 우수농업인 춘천시장 표창 수상

심정섭(신동면) | 우수농업인 춘천시장 표창 수상 김희봉(남산면) | 우수농업인 춘천시장 표창 수상 **송종원**(동내면) | 우수농업인 춘천시장 표창 수상 심창기(사북면) | 우수농업인 춘천시장 표창 수상

사업안내



2024년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 대 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4.1.1~2006.12.31.출생자)

2 신청기간

12월 중 온라인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https://www.greendaero.go.kr/svc/rfph/youngfarm/index.do?tab=1)

3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 신청 시 5개년 영농계획서 등이 필요하오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농업인력 내국인 모집안내

 1
 고용기간

2024. 1. ~ 2024. 12.

- 농가와 협의하여 고용기간 변동가능

2 모집인원

500명

3 근무조건

월 근로시간 × 시간급(9,860원/최저시급)

- 예시) 월 26일(일 8시간)근로 시 월급 2,050,880원(9,860원/시간)
- 농가와 협의하여 근무조건 변동가능
- 숙식 제공 시 농가와 협의하여 보수에서 차감

4 기타

- 접수 후 농가와 근로희망자가 숙식제공 및 세부 사항 협의 결정



농어업회의소가 드리는 회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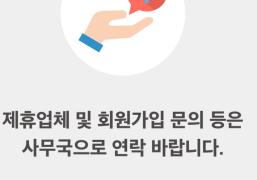


☎033-253-7955 | 공지로367









제휴혜택 이용방법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입력후 인증하기





인증된 화면 직원에게 보여주면 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장길 39, 2층 D-4 전화 033) 252-0038 팩스 033) 252-0438 홈페이지 http://ccaah.co.kr/

신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큰 성취도 이룬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춘천시 농어업계의 권익을 대변 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 농업인분들의 한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회의소 회원분들을 비롯하여 농어업계에 몸담으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0명의 회원 수 증가와 많은 행사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2023년 농업정책사업을 여러분과 같이 멋지게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 농어업 예산 등 전반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에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여러분의 농정 파트너로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밝아 오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삶의 풍경마다 건강과 행복이 머물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회장 차 종 원 드림

